

## 海東朱子 李滉의 和蘇詩

류 소 진\*

〈目 次〉

- |                         |                          |
|-------------------------|--------------------------|
| I. 서론                   | IV. 동시대 문인들과의 교류를 위한 화소시 |
| II. 소식과의 정서적 교감을 위한 화소시 | V. 결론                    |
| III. 소식과의 시재 비견을 위한 화소시 |                          |

### I. 서론

北宋 문인 蘇軾(號 東坡, 1036~1101)은 그의 시문집이 고려 시대에 이미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많은 문인들이 그의 작품을 즐겨 읽고 적극적으로 학습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식의 영향력은 고려 중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 많은 문인들이 소식의 시문을 적극적으로 학습하였을 뿐 아니라, 시를 지을 때 소식의 詩句나 관련 일화를 典故로 취하기도 하고 소식의 시에 追和하기도 하는 등 소식 추앙과 학습의 면모가 다양하게 구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 추앙과 그의 시문에 대한 학습이 오랜 기간 한결같은 수는 없었기에 사회적 기풍·사상적 배경 등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특히 조선 중기에는 性理學의 영향으로 인해 소식에 대한 추앙과 학습

---

\* 우송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

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소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성리학이 점점 성행함에 따라 그의 학문과 사상이 신랄하게 비판을 받으며 그에 대한 純儒들의 배격이 아주 심해졌을 뿐 아니라 그의 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생겼다.<sup>1)</sup>

필자는 소식이 고려 및 조선 문단에 끼친 영향에 대해 거시적으로 살펴 보던 중에 “오직 퇴계 상공만이 소동파의 시 읽기를 좋아하여 늘 ‘구름 걷히니 달이 밝은데 누가 구름으로 달빛을 돋우나? 하늘과 바다는 본래 저리 맑거늘’이라는 구절을 낭송했으며, 자신이 지은 시에도 소동파의 말을 쓴 것이 많다(唯退溪相公好讀坡詩, 常誦‘雲散月明誰點綴, 天容海色本澄清’<sup>2)</sup>之句, 其所著詩使坡語者多矣)<sup>3)</sup>”라고 한 權應仁(1562 전후)의 말과 “퇴계의 시는 동파와 매우 비슷한데, 다른 사람들은 나 역시 감히 믿지 못하겠소(退溪之詩, 頗似東坡, 而其它吾亦不敢信也)<sup>4)</sup>”라고 한 申緯(1769~1847)의 말을 보고, 이를 단서로 삼아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 결과, 李滉(號退溪, 1501~1570)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의 시를 즐겨 읽었고 더 나아가 시가창작 방면에서도 소식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이항 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소식과의 영향 관계를 언급한 논문이 있기는 하나,<sup>5)</sup>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서술하는 도중에

- 1) 조선 중기에는 성리학이 성행함에 따라 문단 내에 소식을 추앙하는 열기가 잠시 식었으며 심지어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커졌는데, 이는 洛蜀黨爭과 관련이 매우 깊다. 洛蜀黨爭은 元祐(1086~1093) 연간에 程顥와 程頤를 중심으로 한 洛黨과 蘇軾과 蘇轍을 중심으로 한 蜀黨 사이의 학문적 다툼이 정치적 암투로까지 발전한 당파간의 분쟁을 말한다. 이로 인해 洛派를 계승한 程朱學派, 즉 성리학자들이 蜀派의 영수였던 소식을 매우 증오하게 되었는데, 조선의 성리학자들도 대다수가 이 영향을 받아 소식의 爲人이나 학술뿐만 아니라 소식의 문학까지 비판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 2) 蘇軾, 〈6월 20일 밤에 바다를 건너다(六月二十日夜渡海)〉[蘇軾 著, 王文誥 輯註,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卷43]
- 3) 權應仁, 《松溪漫錄·下》, 韓國文集叢刊本.
- 4) 申錫愚, 〈紫霞軟譚〉, 《海藏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7.
- 5) 정석태의 〈退溪의 梅花詩에 對하여〉, 《退溪學研究》 제5집, 1991, 리우닝의

이황이 어떤 방면에서 소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식으로 짚막하게 몇 줄 언급했을 뿐이고, 이황과 소식의 영향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sup>6)</sup> 더구나 「和蘇詩」<sup>7)</sup> 창작은 소식 애호의 중요한 방식이자 소식 시 학습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황의 화소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박사논문에서 고려 및 조선 한문시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소식이 이황 시가에 미친 영향의 일환으로 이황의 화소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한 바 있으나,<sup>8)</sup> 이에 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황의 화소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황의 화소시는 12題 14首로,<sup>9)</sup> 중국 문인들에

〈李退溪와 朱熹 詩風의 差異 및 그 原因〉, 《退溪學報》 제126집, 2009, 신두환의 〈退溪의 漢詩에 나타난 「拙樸」의 美〉, 《漢字漢文教育》 제20집, 2008, 신두환의 〈주자와 퇴계의 매화시 비교 연구〉, 《淵民學志》 제32집, 2019 등이 있다.

- 6) 이에 필자는 소식이 이황이라는 개별 문인에게 끼친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최근에 먼저 〈李滉 詩歌의 蘇軾 관련 用典 양상〉, 《中國語文學誌》 제70집, 2020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 7) 陶淵明의 시에 추화하여 지은 화답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가 많이 있어 왔고, 또 이를 「和陶詩」라고 부르는 것이 학계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蘇軾의 시에 추화하여 지은 화답시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별도의 명칭도 없다. 본고는 편의상 「和陶詩」라는 표현방식을 원용하여 소식 시에 추화한 화답시를 「和蘇詩」라 부르기로 한다.
- 8) 拙稿,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 北京: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109-114쪽 참조.
- 9)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韓國文集叢刊本 《退溪先生文集》·《退溪先生別集》·《退溪先生續集》·《退溪先生續內集》·《退溪先生外集》에 수록된 이황의 시 중에서 화소시를 찾아냈다. 이황의 문집에 실린 이황의 시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이황 연보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도 참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次韻 答新寧宰黃仲舉〉(제4장 <표 1> 9번)와 같이 간혹 시체에 소식의 시운을 사용했음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누락된 시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대한 이황의 「追和詩」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황이 이미 고인이 된 중국 문인들의 시에 화답하여 지은 追和詩가 122수인데, 추화 대상과 추화시의 수는 각각 朱熹 30수, 陶潛 22수, 杜甫 18수, 蘇軾 14수, 韓愈 12수, 邵雍 8수, 無名氏<sup>10)</sup> 5수, 黃庭堅 3수, 蘇轍·宋濂 각 2수, 李白·白居易·劉禹錫·柳宗元·歐陽脩·黃潛 각 1수이다.<sup>11)</sup> 이를 통해, 이황의 추화 대상은 朱熹·邵雍·宋濂·黃潛 등의 성리학자 및 杜甫·韓愈 등 유가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황 역시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유가를 존송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식이 조선 중기 성리학자들에게 사상·학문뿐 아니라 문학 방면에서도 오히려 배척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대표 성리학자인 이황이 소식의 시에 여러 차례 추화하였음은 물론 화소시가 중국 문인들에 대한 추화시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이황의 화소시 창작 양상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봄으로써 소식이 이황 시에 미친 영향의 일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10) 이 시의 제목은 <양생을 읊은 절구. 고인의 운자에 차운하여 경림에게 보이다 (養生絕句. 次古人韻示景霖)>로 시제에 고인이 누구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시의 서문에서 이황은 친구에게 빌린 책에서 우연히 발견한 시에 추화한 것이라고 밝히며, 고인이 누구인지는 이황 자신도 몰랐던 것임을 알 수 있다.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참조.

11)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화소시를 찾는 작업 중에 이황의 和詩 창작현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이황의 전체 시에서 화시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파악해 보았는데, 그 가운데 이미 고인이 된 중국 문인들의 시에 추화한 시에 대해서는 추화의 대상과 수량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다만 본고의 주요 연구대상이 이황의 화소시이므로 모든 중국 문인들의 시에 대한 추화시를 다 세세하게 살피지는 못했다. 아울러 현전하는 이황의 시가 매우 많은 데다 간혹 시제에 화답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누락된 시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 II. 소식과의 정서적 교감을 위한 화소시

이황은 소식의 시에 공감한 나머지 평소에 늘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시의 韻字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회를 토로하곤 했다.

먼저 소식의 〈11월 26일 송풍정 아래 매화가 만개하다(十一月二十六日松風亭下梅花盛開)〉<sup>12)</sup>와 이에 대한 이황의 화소시를 보자.

소식, 〈11월 26일 송풍정 아래 매화가 만개하다(十一月二十六日松風亭下梅花盛開)〉

春風嶺上淮南村,	춘풍령 고개 위의 회남촌 마을
昔年梅花曾斷魂.	그 옛날에 매화가 녀을 잃게 했었지.
豈知流落復相見,	어찌 알았으리 여기저기 떠돌다가 다시 만날 줄을?
蠻風蠻雨愁黃昏.	비바람 몰아치는 남방에 황혼 드니 근심 더 깊어진다.
長條半落荔支浦,	휘늘어진 긴 가지는 여지 개펄에 반쯤 당고
臥樹獨秀枕棚園.	비스듬히 누운 나무는 광랑 동산에 돋보인다.
豈惟幽光留夜色,	어찌 연한 그 빛같이 밤을 붙잡을 뿐이라?
直恐冷艷排冬溫.	싸늘한 자태는 추운 겨울에 일말의 온기마저 뺏을 듯.
松風亭下荊棘裏,	송풍정 밑 가시밭에 외로운 두 그루가
兩株玉蕊明朝暎.	아침 햇살 흠뻑 받아 백옥처럼 빛난다.
海南仙雲嬌墮砌,	바다 남쪽 선경의 구름이 섬돌 밑에 곱게 떨어지는 듯
月下綉衣來扣門.	흰옷 입은 선녀가 달밤에 와 말없이 문을 두들기는 듯.
酒醒夢覺起繞樹,	술도 깨고 꿈도 깬 채 나무 주위를 맴돌아도
妙意有在終無言.	나무는 속마음을 끝내 말하지 않는다.
先生獨飲勿嘆息,	혼자서 마신다고 탄식할 것 없나니
幸有落月窺清樽.	다행히 지는 달이 술잔을 엿본단다.

12) 蘇軾 著, 《蘇軾詩集》, 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38.

1094년 惠州에서 유배생활 중이던 소식은 11월 말에 산책을 나갔다가 송풍정 아래에서 우연히 한겨울에 활짝 핀 매화를 발견하고는 문득 黃州로 유배 가는 중이던 1080년 1월 20일 춘풍령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만발해 있던 매화가 생각나 반가운 마음에 이 시를 지었다.

이황, <호당의 매화가 늦은 봄에야 비로소 피었기에 동파의 운을 사용하여 짓다(湖堂梅花, 暮春始開, 用東坡韻, 二首)><sup>13)</sup> 其一

我昔南遊訪梅村,	내가 예전에 남쪽에서 노닐다 매화 마을에 갔을 때
風烟日日銷吟魂,	그 풍광이 날이면 날마다 시심을 녹였었네.
天涯獨對歎國艷,	머나먼 시골에서 홀로 보고 경국지색이라 감탄하며 <sup>14)</sup>
驛路折寄悲塵昏,	역참 길에서 꺾어 부쳤나니 먼지 앉아 침침해 슬펐네.
邇來京輦苦相憶,	그 후에 서울에 살며 몹시도 그리워서
清夢夜夜飛丘園,	맑은 꿈속에 밤마다 언덕 위의 동산으로 날아갔네.
那知此境是西湖,	어찌 알았으리오 이곳이 바로 서호일 줄을
邂逅相看一笑溫,	우연히 보게 되어 따뜻하게 한 번 웃네.
芳心寂寞殿殘春,	향기로운 화심은 적막하게 남은 봄을 장식하고
玉貌婬約迎初暎,	옥 같은 자태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아침 해를 맞이하네.
伴鶴高人不出山,	학을 벗 삼은 고아한 선비는 산에서 나오지 않고
辭輦貞姬常掩門,	옥련을 사양한 정숙한 여인은 항상 문을 닫고 있네.
天教晚發壓桃杏,	하늘이 늦게 피어 복사꽃과 살구꽃을 제압하게 했나니 <sup>15)</sup>

- 13) 시제에 “봄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나아간 후이다(春赴召後)”라는 주석이 있다. 李滉, 《退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 14) 여기에서 매화를 ‘國艷’이라하며 傾國之色에 비유했는데, 이는 소식이 <11월 26일 송풍정 아래 매화가 만개하다(十一月二十六日松風亭下梅花盛開)>를 짓고 난 후, 같은 운자를 사용하여 다시 지은 <다시 앞의 운자를 사용하다(再用前韻)>, 《蘇軾詩集》 卷38에서 “天香國艷肯相顧”라고 한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15) “天教晚發壓桃杏”이라는 구절은 소식이 <매화를 읊은 양공제(즉 楊蟠)의 절구 열 수에 다시 화답하다(再和楊公濟梅花十絕)>, 《蘇軾詩集》 卷33 其二에서 “하늘이 복숭아와 자두를 친한 것이 되게 하려고, 일부러 매화에게 가장 먼저 피게 하네(天教桃李作興臺, 故遣寒梅第一開)”라고 한 것과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妙處不盡騷人言. 오묘한 면을 시인의 말로도 다할 수 없네.  
 媚態何妨鐵石腸, 부드럽고 고운 그 모습 강철 심장인들 무슨 상관이리?  
 莫辭病裏携罍罇, 병중에 술 항아리 들고 감을 사양하지 마시게.<sup>16)</sup>

이 시는 1544년 이황이 弘文館校理로 조정에 돌아와 있던 무렵, 자신이 머물고 있던 호당에서 느지막이 피어난 매화를 발견하고는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sup>17)</sup> 이황은 예전에 남쪽에서 노닐다 매화를 보고는 매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고, 그때 보았던 매화가 그리워 늘 꿈속에서 찾아 헤매곤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호당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소식의 원시에는 그가 외롭고 힘든 유배지에서 오랜만에 매화를 마주한 반가움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바, 이황 역시 꿈에서도 그리던 매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불현듯 소식의 이 시를 떠올리고는 당시 소식의 심경에 공감하며 이 시에 추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식의 <신성으로 가는 길에(新城道中, 二首)><sup>18)</sup>라는 시와 이에 대한 이황의 화소시를 보자.

소식, <신성으로 가는 길에(新城道中, 二首)>

其一

東風知我欲山行, 나의 산행 계획을 동풍이 눈치채고  
 吹斷簷間積雨聲. 처마 밑의 장맛비 소리를 날려 버렸다.  
 嶺上晴雲披絮帽, 고갯마루 얇은 구름은 걸쳐 놓은 솜 모자

16) 본고에서 인용한 이황 시의 번역은 《퇴계시품이》(1-9)[李滉 著, 이장우·장세후 옮김,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2019]를 참고하되 자구를 많이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17) 《退溪先生年譜》에 “[世宗嘉靖] 23년. 갑진년. 선생 44세] 2월, 홍문관교리로 부름을 받고 조정에 돌아오다. 독서당에 매화가 늦은 봄에야 비로소 피었기에 동파의 운을 써서 지은 시가 두 수 있다(二十三年甲辰, 先生四十四歲) 二月, 以弘文館校理召還, 有讀書堂梅花暮春始開, 用東坡韻二詩”라 했다. 柳成龍, 《退溪先生年譜》, 韓國文集叢刊本 卷1.

18) 蘇軾 著, 《蘇軾詩集》, 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9.

樹頭初日挂銅鉦。	나무 꼭대기 아침 해는 걸어 놓은 구리 징.
野桃含笑竹籬短。	키 작은 대울타리엔 돌복숭아 웃고 섰고
溪柳自搖沙水清。	물 맑은 시냇가엔 냇버들이 체질한다.
西崦人家應最樂。	서산 밑의 농가는 지금 한창 신나겠다
煮芹燒筍餉春耕。	미나리 삶고 죽순 찌서 들밥을 내가느라.

其二

身世悠悠我此行。	몸과 세상 아득해진 나의 이번 걸음
溪邊委轡聽溪聲。	냇가에서 말 고삐 늘어뜨리고 냇물 소리 들으며 간다.
散材畏見搜林斧。	잡목은 숲을 뒤지는 도끼 보기를 두려워하는데
疲馬思聞卷旆鉦。	지친 말은 깃발 접고 쉬라는 징 소리 듣기를 그리워한다.
細雨足時茶戶喜。	가랑비 촉촉이 내린 때라 차 재배 농가가 기뻐하고
亂山深處長官清。	삐죽한 산 깊은 곳에도 현령의 청렴이 나타나 있다.
人間岐路知多少。	이 세상의 갈림길 얼마나 될까?
試向桑田問耦耕。	뽕밭을 향해 나란히 서서 밭 가는 이에게 물어본다. <sup>19)</sup>

이 시는 소식이 1073년 2월 杭州通判으로 재임할 때 杭州 서남쪽에 있는 항주의 屬縣 新城으로 시찰을 나가면서 보고 느낀 바를 노래한 것이다. 비가 내린 뒤 더욱 맑고 상쾌해진 농촌 풍경을 묘사했는데, 농사일로 바쁘지만 忙中閑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농민들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다.

이황, <새벽에 시냇가의 집에 이르렀더니 우연히 동파가 신성으로 가는 길에 쓴 시가 생각나서 그 운자를 사용하다(晨至溪莊, 偶記東坡新城途中詩, 用其韻, 二首)><sup>20)</sup>

其一

觸熱朝天病未行, 더위 무릅쓰고 임금님을 알현하려다 병들어 못 가고

19) 본고에서 인용한 소식 시의 번역은 《정본완역 蘇東坡詩集(1-4)》[蘇軾 著(柳種陸 譯註),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2019]을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구를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20) 李滉, 《退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溪莊回轡趁雞聲。	닭 우는 소리 따라 시냇가의 집으로 말고삐를 돌렸네.
雲山正似盟藏券，	구름 낀 산은 꼭 맹세한 후 그 문서를 숨겨 놓은 것 같고
身身渾如戰退鉦。	내 신세는 완전히 전쟁에서 물러난 징 같네.
雨過澗門林氣爽，	동굴 입구에 비 지나가니 숲의 기운 상쾌하고
風生石竇澗音清。	바위틈에서 바람이 이니 산골짜기의 물소리 맑네.
山翁笑問溪翁事，	산 늙은이 웃으면서 퇴계 늙은이의 일을 묻는데
只要躬耕代舌耕。	그저 몸소 밭 가는 것으로 혀로 밭 가는 걸 대신해야지.

其二

朝從溪上傍溪行，	아침에 시냇가로 시내 옆을 걸었는데
纔到溪莊聞雨聲。	시냇가의 집에 이르자마자 빗소리가 들렸네.
里社行誇宰分肉，	사당에서 고기를 잘라 고루 나눠 줌을 자랑하려 하고
詞壇曾笑將鳴鉦。	문단에서 영도하여 징 울린 것을 비웃었네.
寬開南野麥浪徧，	넓찍하고 조용한 남쪽 들녘은 보리 물결로 가득하고
翠密西林禽語清。	푸르름 짙은 서쪽 숲은 새 지저귀는 소리가 맑네.
聖主洪恩知不棄，	어진 임금님께서 큰 은혜로 날 버리지 않으실 줄 알지만
只緣多病合歸耕。	다만 병이 많으니 돌아와 농사지어야 하리.

이황은 우연히 소식의 이 시가 생각나서 그 운자를 사용했다고 시제에서 밝혔다. 이를 통해 이황이 그저 단순하게 소식 시의 운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동기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조정으로 가려다가 병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이황이 갑자기 소식의 이 시를 떠올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황의 이 화소시는 그가 46세였던 1546년에 지은 것인데, 이 무렵 그는 퇴계의 동쪽 바위에 양진암을 짓고, ‘兔溪’라 불리던 시내를 ‘退溪’로 바꾼 후 이것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sup>21)</sup> 평소 몸도 허약한 편이었고 벼슬

21) <<退溪先生年譜>>에 “[世宗嘉靖] 25년. 명종대왕 원년. 병오년. 선생 46세] 2월, 휴가를 청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 권질 공의 장사를 지내다. 5월, 병으로 조정에 돌아오지 못하여 관직에서 해임되다. 7월, 부인 권씨가 죽다. 8월, 교서관교리 겸 승문원교리에 제수되다. 11월, 예빈시정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다. 퇴계의 동쪽 바위에 양진암을 짓다. 이보다 먼저 온계리

에도 욕심이 없었던 이황은 기회만 생기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고자 하였는데,<sup>22)</sup> 이 무렵 퇴계에 은거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면서 은거를 향한 그의 염원이 더욱 강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님을 알현하려다 병으로 가지 못하고 말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비 온 후 더욱 상쾌해진 숲의 기운을 느껴 보고 또 바위틈으로 들리는 맑은 산골짜기의 물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이와 유사하게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노래했던 소식의 시가 문득 떠올랐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황이 其一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산 늙은이 웃으면서 퇴계 늙은이의 일을 묻는데, 그저 몸소 밭 가는 것으로 혀로 밭 가는 걸 대신해야지(山翁笑問溪翁事, 只要躬耕代舌耕)”<sup>23)</sup>라 하고, 其二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어진 임금님께서 큰 은혜로 날 버리지 않으실 줄 알지만, 다만 병이 많으니 돌아와 농사 지어야 하리(聖主洪恩知不棄, 只緣多病合歸耕)”라고 한 것은 바로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드러낸 것이다.

소식의 원시에 “이 세상의 갈림길 얼마나 될까?(人間岐路知多少)”라는

남쪽 지산 북쪽에 작은 집을 지었으나, 인가가 조밀하여 전혀 아늑하고 고요하지 않아, 이해에 비로소 퇴계의 아래에서 2-3리 되는 곳에 임시로 거처하면서, 동쪽 바위 옆에 작은 암자를 짓고는 ‘양진’이라 이름하다. 시내에 속칭 토계로 불렸으나 선생이 ‘토’를 ‘퇴’로 바꾸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호로 삼다(二十五年, 明宗大王元年, 丙午, 先生四十六歲) 二月, 乞假還鄉, 葬外舅權公墳。○五月, 病未還朝, 解職。○七月, 夫人權氏卒。○八月, 除校書館校理兼承文院校理。○十一月, 除禮賓寺正, 皆不赴。○築養眞菴于退溪之東巖。先是, 構小舍於溫溪之南芝山之北, 以人居稠密, 頗未幽寂。是年, 始假寓于退溪之下數三里, 於東巖之旁作小菴, 名曰: ‘養眞’。溪俗名兔溪, 先生以退改兔, 因自號焉”라 했다. 柳成龍, 《退溪先生年譜》, 韓國文集叢刊本 卷1.

- 22) 이황은 자신이 직접 쓴 《墓碣銘》의 앞부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크게 어리석었고, 자라서는 병이 많았네. 중간에 어이하여 학문을 좋아했으며, 말년에는 어이하여 벼슬을 차지했나? 학문은 구할수록 점점 멀어지고, 벼슬은 사양할수록 더욱 달라붙었네(生而大癡, 壯而多疾. 中何嗜學, 晚何叨爵. 學求猶逸, 爵辭愈嬰)”라 했다. 柳成龍, 《退溪先生年譜附錄》, 韓國文集叢刊本 卷3.
- 23) 《拾遺記》에 “가규는 제자들이 천 리가 멀다 않고 배우러 와서 곡식을 바친 지라 창고가 가득 찼다. 어떤 사람이 가규는 몸으로 밭을 간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른바 ‘혀로 밭을 간 것’이다(賈逵門徒, 來學不遠千里, 獻粟盈倉, 或云逵非力耕, 所謂舌耕)”라는 말이 있다.

구절이 있는데, 어쩌면 이황은 이 시구를 떠올리며 이 세상에 갈림길이 얼마나 되는지 자문하고, 나아가 인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해 본 후, 이 화소시를 지으면서 그 안에다 자신이 택한 길을 대담으로 제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관직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소식의 원시에 그려져 있는 농민들처럼 전원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대답이었던 것이다.

이황이 이렇게 은거를 꿈꾸면서 소식의 이 시를 떠올리고 추화까지 한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소식 원시의 창작배경 및 은거에 대한 소식의 견해가 어땠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의 소식 원시는 1073년 항주에서 지은 것이다. 소식은 1071년에 항주 통판으로 부임했는데 이는 당시 新法派와 舊法派의 대립으로 인해 王安石(1021~1086)과의 정치적인 갈등이 심했던 소식이 정세의 위협을 느끼고 스스로 외직을 자청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소식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항주에서 지내면서 울분을 참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여기에서의 생활을 절반의 은거, 즉 「中隱」이라 여기게 되었다.<sup>24)</sup>

소식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항상 은거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한 애국애민 사상으로 인해 결국 관직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산림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황도 소식과 비슷하게 벼슬을 하면서도 늘 은거를 꿈꾸었다. 그는 실

24) 소식은 〈신성으로 가는 길에(新城道中, 二首)〉를 짓기 한 해 전인 1072년에 지은 〈6월 27일 망호루에서 술에 취하다(六月二十七日望湖樓醉書五絕)〉, 《蘇軾詩集》 卷7 其五에서 “소운을 못 이루고 증은이나 하나니, 오래도록 한가함이 잠시 한가함보다 나은 줄은 알지만, 내 본시 집 없거늘 더 이상 어디로 간단 말인가? 고향에는 이리 좋은 산과 호수도 없거늘(未成小隱聊中隱, 可得長閑勝暫閑. 我本無家更安往, 故鄉無此好湖山)”이라 했다. 소운이란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산림으로 들어가 은거하는 것이고, 대운이란 몸은 조정이나 번화한 도회지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은거의 기분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증은은 이 두 가지의 중간으로 閑職을 맡고 있으면서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산림 속에 은거하는 은자들처럼 거리낌없이 사는 것을 뜻한다.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서울: 신서원, 2005, 94쪽 참조.

제로 병을 핑계로 수차례 벼슬을 그만두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대신 고향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불러 가거나 한직을 지내다가 다시 조정으로 불러 가는 등 「小隱」을 몸소 실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마침 또 병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농촌 풍광에 매료되어, 임금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소은」을 꿈꿔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이황은 평소 소식의 은거관 및 소식 원시의 이러한 창작배경을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관직을 떠나 산수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소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이 시에 추화하며 소식과 정서적으로 교감해 보고자 했던 것 같다.

이황은 추화시를 쓰면서 자신이 추화한 배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양생을 읊은 절구. 고인의 운자에 차운하여 경림에게 보이다(養生絕句. 次古人韻示景霖)〉<sup>25)</sup>라는 시의 서문이다.

내가 최근에 운서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 보았는데, 그 책자의 길장 안쪽에서 절구 한 수를 발견했다. …… 어디 사람이기에 능히 내 가슴속의 일을 먼저 말할 줄 알았는지 모르겠다. 병중이라 책도 읽을 수 없어 가슴속의 회포를 풀 길이 없었기에 매일 그 말을 음미하다가 마침내 그 쇠약해진 늘그막의 탄식과 섭생의 뜻을 풀어내어 일곱 수를 얻게 되었기에 삼가 받들어 드린다(僕此來無韻書, 從人借看, 其册子衣裏面得一絕句. …… 不知何許人而能先道僕胸中事耶. 病不讀書, 無以遣懷, 日有味於其言, 遂述其哀暮之嘆, 攝養之意, 得七首<sup>26)</sup>奉呈).

이황은 비록 이 시의 작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마치 자신의 가슴속 일을 말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시를 읽고 크게 감화된 바가 있어, 매일 그 말을 음미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추화시를 지었다고 스스로 창작 동기를 밝혀 놓았다.

또 〈저물녘에 걷다(晩步)〉<sup>27)</sup>라는 시에는 “명양정의 손자가 일찍이 이

25)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26) 이황이 서문에서 ‘七首’라고 했으나 현전하는 시는 다섯 수이다.

시를 지었는데 우연히 읽어 보고는 마음에 들어 그 시의 운자를 사용한다(明陽正賢孫嘗有此詩, 偶讀而愛之, 用其韻)라는 주석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황은 이 시가 마음에 들어 추화했다고 직접 밝혀 놓았다.

비록 앞에서 살펴본 화소시에는 이황이 이렇게 추화의 배경을 밝혀 놓지 않았지만, 그가 평소 마음에 드는 시가 있거나 시를 읽고 감화되는 바가 있을 때 추화시를 쓰곤 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화소시 역시 이와 비슷한 심리로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화소시의 경우 소식의 원시와 창작배경이 아주 유사하거나 내용상 비교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소식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황이 소식의 심경에 깊이 공감한 나머지 화소시를 지은 것으로, 소식과 정서적으로 교감해 보고자 하는 심리가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소식과의 시재 비견을 위한 화소시

이황은 때때로 자신의 시재를 소식과 견주어 보고자 하는 심리에서 화소시를 짓기도 했다. 다음은 소식이 눈이 내린 뒤의 감회를 읊어서 密州北城 위에 있던 누대의 벽에 써 놓은 시이다.

소식, 〈눈이 내린 뒤 북대의 벽에 쓰다(雪後書北臺壁, 二首)〉<sup>28)</sup>

其一

黃昏猶作雨纖纖,	황혼녘엔 아직까지 부슬부슬 비가 왔기에
夜靜無風勢轉嚴.	고요한 밤 바람 자고 날씨가 추워져도
但覺衾裯如潑水,	이불에 물 뿌린 듯한 느낌만 들었을 뿐
不知庭院已堆鹽.	정원에 이미 소금이 수북한 줄은 몰랐다.
五更曉色來書幌,	오경의 새벽 빛이 서재를 찾아오는데

27) 李滉, 《退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28) 蘇軾 著, 《蘇軾詩集》, 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12.

半夜寒聲落畫簷. 한밤중의 찬 소리가 처마에서 떨어지매  
試掃北臺看馬耳, 북대의 눈을 쓸고 마이산을 한번 바라보니  
未隨埋沒有雙尖. 눈에 덮이지 않은 것은 두 봉우리뿐이로다.

## 其二

城頭初日始翻鴉, 성 위에 해가 뜨고 까마귀 날기 시작하자  
陌上晴泥已沒車. 햇살 받은 진흙 길이 수레가 빠질 지경.  
凍合玉樓寒起粟, 얼어붙은 옥누각엔 추위로 소름 일고  
光搖銀海眩生花. 반짝이는 은빛 바다는 눈이 부서 어지럽구나.  
遺蝗入地應千尺, 누리 알이 땅속으로 천 자나 들어갈 터  
宿麥連雲有幾家. 보리가 구름에 닿는 집이 몇 집이나 되려나?  
老病自嗟詩力退, 늙고 병들어 시 짓는 힘이 쇠퇴해졌다 자탄하고  
空吟冰柱憶劉叉. <고드름>이나 읊으며 유차를 그려 본다.

陸游가 <소동파가 ‘尖’·‘叉’운을 써서 눈을 읊은 시에 화답한 여성숙의 시를 읽고 쓰다(跋呂成叔和東坡尖叉韻雪詩)>에서 “소문충공의 문집에 ‘尖’·‘叉’ 두 자를 써서 눈을 읊은 시가 있고 왕문공의 문집에는 또 소식의 운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있는데 논자들이 말하기를 ‘이들 두 분 말고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 예주통판 성숙 여문지는 마침내 단번에 100편을 창화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절묘하여 억지로 끌어다 붙인 병폐가 없다”<sup>29)</sup>라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 많은 시인들이 이 시에 화답시를 지었다.<sup>30)</sup> 이 시의 운자가 險韻이라 시를 짓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훌륭한 시를 짓자, 시인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이 시에 화답시를 지었던 것이다. 소식이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의 앞 시에 화답한 것에 감사하다(謝人見和前篇, 二首)><sup>31)</sup>

29) “蘇文忠集中有雪詩，用尖·叉二字，王文公集中又有次蘇韻詩，議者謂：‘非二公莫能爲也。’通判澧州呂文之成叔，乃頤和百篇，字字工妙，無牽強湊泊之病。”[陸游，<跋呂成叔和東坡尖叉韻雪詩>，文淵閣四庫全書本《渭南文集》卷30]

30) 蘇軾 著(柳種桂 譯註)，《정본완역 蘇東坡詩集2》，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00쪽 참조.

31)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 <雪後書北臺壁, 二首>에 창화한 것을 보고 이에 감

라는 시까지 지은 것 역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준다.

이황 역시 다른 문인들처럼 소식과 시재를 비견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위의 소식 시 其二에 차운하여 다음과 같은 화소시를 지었다.

이황, <도중에 눈을 만나 읊어 보내준 시에 화답하여 동과 시의 운자를 사용하다(酬途中遇雪見寄詩, 用坡韻)><sup>32)</sup>

一縣應知絕鼠牙,	은 고을에 포악한 세력이 끊겼음을 응당 알아야 하나니
神君來路雪隨車.	어진 관리가 오시는 길에는 눈이 수레를 따르네.
來糴上瑞呈王瑞,	밀과 보리의 최고의 상서는 임금님의 상서를 보여 주고
桃李狂花掃眼花.	때 아닌 복숭아꽃과 자두꽃은 눈앞의 아른거림 쓸어내네.
目極雲邊思魏闕,	구름 가를 한없이 바라보며 높은 궁궐 생각하고
詩成馬上憶山家.	말 위에서 시 지어지니 산골집을 그리 보네.
凜吟病客眞堪笑,	입이 언 채 읊조리는 병든 나그네가 실로 우습나니
險韻難酬手屢叉.	험운이라 화답하기 어려워 손을 누차 깎지 끼네. <sup>33)</sup>

이황, <차운하여 신령 현감 황중거(즉 황준량)에게 답하다(次韻, 答新寧宰黃仲舉)><sup>34)</sup> 其二

千林浩渺樹槎牙,	천 개의 아득한 숲엔 나무가 들쭉날쭉하고
萬里同雲羈日車.	만 리나 되는 같은 색깔 구름은 태양을 덮었네.
亂片非時驚柳絮,	때아니게 날리는 어지러운 조각의 버들개지에 놀라나니

사의 의미로 다시 차운하여 두 수를 지은 것이다. <雪後書北臺壁, 二首>는王安石·呂文之 등 당시 문인들의 唱和詩가 굉장히 많았거니와 왕안석이나 여문지가 이 시를 보기도 전인 눈이 내린 직후에도 密州 문인들이 北臺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며 번갈아 창화시를 지었는데 <謝人見和前篇, 二首>는 이에 대하여 다시 창화한 시인 것으로 보인다. 蘇軾 著(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04쪽 참조.

32)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33) 이 시에 “이 해에는 복숭아꽃과 자두꽃이 겨울에 피었다(是歲, 桃李冬華)”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34) 李滉, 《退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本 卷2. 두 수 가운데 其二만 소식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暗香無處覓梅花. 그윽한 향기 풍기는 매화는 찾을 곳이 없네.  
 何知暈點朝回袖, 어찌 알았으리 조회하고 오는 소매에 햇무리 찍힐 줄을?  
 只恐平封凍臥家. 빈털터리 된 채 얼어서 집에 누워 있을까 걱정될 뿐이네.  
 坐想琴軒增絕致, 문득 생각나나니 관청에 멋진 경치가 더해졌을 터  
 萬竿堆壓玉相叉. 만 그루에 쌓이고 눌러 옥이 서로 교차하겠네.

두 수 모두 소식의 원시와 마찬가지로 눈 내린 풍경을 소재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용한 시는 시제 혹은 주석에서 소식의 시운을 사용했다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운자를 대조해 보면 역시 첫 번째 인용한 시와 동일한 소식의 시에 차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황은 첫 번째 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입이 언 채 읊조리는 병든 나그네가 실로 우습나니, 험운이라 화답하기 어려워 손을 누차 깎지 끼네(凍吟病客眞堪笑, 險韻難酬手屢叉)”<sup>35)</sup>라고 하며 소식 원시의 운자에 관해 직접 언급했는데, 소식의 시운이 험운이라 화답하기가 어렵다고 넌지시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험운을 사용한 소식의 동일한 시에 반복적으로 차운한 데에는 멋진 시를 지어 자신의 시제를 소식과 견주어 보고자 하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이황의 시제 비견 심리는 <김후지(즉 김인후)가 김계진(즉 김언거)을 위해 칠계를 읊은 10수에 차운하다(次韻金厚之爲金季珍作漆溪十詠)><sup>36)</sup> 其四 <금성산에 눈이 그치다(錦城霽雪)>라는 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두 봉우리 운운한 멋진 구절에 반드시 추화하여, 소식 시만 홀로 이름을 떨치게 하지 않으리(雙尖好句須追和, 莫遣蘇詩獨擅行)”라고 한 데에 잘 나

35) ‘手屢叉’는 唐代 시인 溫庭筠의 고사를 전고로 활용한 것이다. 온정균은 詩才가 뛰어나 여덟 번 두 손을 깎지 낄 동안에 八韻을 이루었기에 ‘溫八叉’라고도 불렀다.(王定保, 《唐摭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121쪽 참조) 여기에서 이황은 자신이 온정균처럼 시제가 뛰어나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깎지를 아무리 꺾 봐도 시가 쉽게 지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여덟 번만 깎지를 끼면 시를 쉽게 완성하는 온정균의 모습과 대비시키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36)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타나 있다. 여기에서 ‘雙尖好句’는 소식의 시 〈눈이 내린 뒤 북대의 벽에 쓰다(雪後書北臺壁, 二首)〉 其一의 마지막 구절에서 “눈에 덮이지 않은 것은 두 봉우리뿐이로다(未隨埋沒有雙尖)”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으로 其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황의 화소시 두 수는 모두 소식의 〈눈이 내린 뒤 북대의 벽에 쓰다(雪後書北臺壁, 二首)〉 其二에 추화한 것이고, 아직 其一에 추화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지라 언젠가 반드시 其一에도 추화하여 소식의 원시 못지않은 멋진 시를 짓고 말겠다는 포부가 이 두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소식이 和陶詩를 쓰면서 “내가 전후로 그의 시에 화답한 것이 모두 백수십 편인데, 득의한 데에 이르면 도연명에 부끄럽지 않다”<sup>37)</sup>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시재 과시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식의 화도시 창작에 도연명을 향한 추앙심의 표현 이외에 도연명과 시재를 비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황의 화소시 창작에도 소식을 향한 흠모의 표현 및 소식 시의 학습 이외에 자신의 시재를 소식이라는 대문호와 한 번 겨루어 보고 싶은 욕구가 내재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IV. 동시대 문인들과의 교류를 위한 화소시

이황은 평소 和詩를 상당히 많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38)</sup> 필자의

37) “吾前後和其詩凡百數十篇, 至其得意, 自謂不甚愧淵明.”[蘇轍 著(曾棗莊·馬德富校點), 《欒城後集》 卷21, 《欒城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子瞻和陶淵明詩集引〉]

38) 이정화는 〈退溪의 和答詩 研究〉, 《韓國漢詩研究》 제10호, 2002, 64쪽에서 “그것은 퇴계시 전체에서 화답시가 차지하는 분량이 적지 않으므로, 이 유형의 시에서 그 변이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의미 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했고, 이종호는 〈퇴계 수창시의 양상과 의의〉,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7호, 2010, 259-260쪽에서 “퇴계는 편지 쓰기를 즐긴 분이다. …… 퇴계는 편지 못지 않게 수창을 즐겼다. 퇴계는 초면이든 구면이든 사람을 만나면 으레 수창

조사에 따르면 현전하는 이황의 전체 시 가운데 화시의 비율이 약 1/3 정도이니 과연 그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겠다.<sup>39)</sup> 이처럼 시로써 교유하기를 좋아했던 이황은 동시대 문인들과 교유할 때 옛 시인들의 詩韻을 활용하기도 한바, 화소시 중에도 이러한 동기에서 지어진 것이 적지 않다.

〈표 1〉 李滉의 和蘇詩<sup>40)</sup>

	李滉 和蘇詩	창작연도	蘇軾 原詩
1	湖堂梅花, 暮春始開, 用東坡韻, 二首	1544	十一月二十六日松風亭下梅花盛開
2	湖堂曉起, 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	1544	定惠院寓居月夜偶出
3	中秋月, 寄士遂(用東坡韻)	1544	中秋月寄子由, 三首
4	晨至溪莊, 偶記東坡新城途中詩, 用其韻, 二首	1546	新城道中, 二首
5	次東坡黃樓詩韻	1548	太虛以黃樓賦見寄, 作詩爲謝
6	拜韓巖先生, 先生令侍兒歌東坡月夜飲杏花下詩, 次其韻示之, 滉亦奉和呈上.	1550	月夜與客飲杏花下
7	十一夜, 陪韓巖先生, 月下飲酒杏花下, 用東坡韻	1551	6번 시와 동일
8	酬途中遇雪見寄詩, 用坡韻	1551	雪後書北臺壁, 二首

을 청했던 것 같다. 특히 문생들에게는 수창을 중용하다시피 했다. …… 수창을 즐겼으니 수창시를 많이 남겼을 터이고, 실제로 대강 그의 문집을 일별해 보면, 수창을 계기로 지어진 작품이 전체 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39) 필자는 이황의 전체 화시 비율을 확인하면서 이황의 화시 유형에 대해서도 대략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화답 대상이 비교적 다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동시대 문인들과 주고받은 시가 전체 화시의 약 77%, 다음으로 고인의 시에 追和한 화시가 약 18%, 이밖에 ‘復和’·‘再用前韻’ 등의 형태로 자신이 예전에 썼던 시에 다시 차운하는 경우 및 유람이나 공무 중에 절·누대·서원 등에 적혀 있는 시를 읽고 여기에 화답한 경우가 약 5%를 차지했다.

40) 〈표 1〉은 필자가 이황의 화소시를 찾아내어 소식의 원시와 대조한 후, 화소시의 창작연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李滉 和蘇詩	창작연도	蘇軾 原詩
9	次韻, 答新寧宰黃仲舉	1551	8번 시와 동일
10	遇宋台叟於途, 期夕回見過, 既至, 小酌花下. (用東坡月下飲杏花下韻)	1552	6번 시와 동일
11	杏花下, 用東坡韻	1554	6번 시와 동일
12	節友壇梅花, 暮春始開. 追憶往在甲辰春, 在東湖, 訪梅於望湖堂, 賦詩二首, 忽忽十九年矣. 因復和成一篇, 道余追舊感今之意, 以示同舍諸友	1563	1번 시와 동일

〈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이황의 화소시 가운데 3번·6번·8번·9번·12번의 경우 시제의 ‘寄’·‘奉和’·‘酬’·‘答’·‘示’와 같은 글자를 통해, 이황이 화소시를 써서 다른 문인들에게 답장을 보내거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등 화소시를 통해 동시대인들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번·10번의 경우 누군가에게 시를 보여 주었다거나 부쳤다는 언급은 없지만, ‘陪龔巖先生’이라든지 ‘遇宋台叟於途, 期夕回見過’라고 한 말을 통해 이황이 당시 이현보(즉 龔巖) 혹은 송기수(즉 宋台叟)와 함께 있으면서 화소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현보와 송기수 역시 이 시를 읽고 이황에게 답시를 써 줬을 가능성도 있다. 전자(3번·6번·8번·9번·12번)의 경우이든 후자(7번·10번)의 경우이든 이황이 동시대인들과의 교류를 위해 소식의 시운을 활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자.

다음은 소식의 〈달밤에 살구꽃 밑에서 손님과 한잔하다(月夜與客飲杏花下)〉<sup>41)</sup>라는 시이다.

杏花飛簾散餘春, 살구꽃이 주렴으로 날아와 남은 봄을 쓸어내고  
明月入戶尋幽人. 밝은 달이 문으로 들어와 외로운 이를 찾는다.

41) 蘇軾 著, 《蘇軾詩集》, 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18.

褰衣步月踏花影,	바지 걷어 올리고 달빛 아래 꽃 그림자 밟노라니
炯如流水涵青蘋.	휘영청 달이 밝아 강에 개구리밥 뜬 듯하네.
花間置酒清香發,	꽃 사이에 술상 차리니 아련한 향이 피어나고
爭挽長條落香雪.	다투어 긴 가지 휘어잡으니 향긋한 눈이 내리네.
山城酒薄不堪飲,	산골 술은 맛이 없어 마실 수가 없으니
勸君且吸杯中月.	술잔 속의 달이나 들이켜기 바라네.
洞簫聲斷月明中,	달빛 속에 사라지는 통소 소리 들으며
惟憂月落酒杯空.	달이 지면 술잔 빌까 그것만이 걱정이네.
明朝捲地春風惡,	내일 아침 모진 봄바람이 땅을 쓸어 버리면
但見綠葉棲殘紅.	푸른 잎에 붉은 꽃이 간간이 보이겠네.

소식이 《東坡志林·憶王子立》에서 “내가 서주에 있을 때 王適(즉 왕자립)과 王濤(즉 왕자민)이 모두 관사에 묵고 있었는데 측인 장사후가 나를 찾아왔다. 한창 젊은 두 왕씨가 통소를 부는 가운데 살구나무 밑에서 술을 마셨다(僕在徐州, 王子立·子敏皆館於官舍, 而蜀人張師厚來過. 二王方年少, 吹洞簫, 飲酒杏花下)”<sup>42)</sup>라고 한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는 바로 소식이 서주지주의 관사에 묵고 있던 왕적·왕훙 형제 및 그를 찾아온 측인 장사후와 함께 살구나무 밑에 앉아서 한창 젊은 나이의 두 왕씨가 멋지게 부는 통소 소리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흐뭇한 기분과 봄이 얼마 남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것이다.<sup>43)</sup>

소식의 이 시에 대해 이황은 화소시를 네 차례나 지었으니, <표 1>의 6번·7번·10번·11번 시가 그것이다. 그중 가장 먼저 지어진 시는 1550년에 이현보와 살구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은 것으로, 이현보가 먼저 소식 시에 차운하여 이황에게 보여 주자 이황이 화답의 의미로 역시 소식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은 것이다. 이현보의 시부터 먼저 살펴보자.

42) 蘇軾, 《東坡志林》(文淵閣四庫全書本) 卷9.

43) 蘇軾 著(柳種桂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3》,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69쪽.

〈경술년 3월 17일에 경호(즉 이황)를 맞이하여 농암의 살구나무 아래서 술을 마셨다. 이때 봄 날씨가 추워서 꽃이 아직 피지 않았는데, 노래 부르는 아이가 소씨 신선의 “다투어 긴 가지 휘어잡으니 향긋한 눈이 내리네(爭挽長條落香雪)”라는 시구를 부르는지라, 그 시에 차운하여 드리고 화답을 청하다(庚戌暮春望後二日, 邀景浩飲龔巖杏樹下. 是時春寒花未發, 而歌兒唱蘇仙爭挽長條落香雪之句, 次其詩拜呈求和)〉<sup>44)</sup>

一年光景屬三春,	한 해의 멋진 경치는 봄 석 달의 것인데
今歲胡爲獨斬人.	올해는 어찌 유독 사람에게 인색한가?
池塘春草是虛句,	연못 물가에 봄풀 난다는 사령운의 말도 헛된 것이고
南澗無人歌採蘋.	남쪽 시내에는 노래하며 마름 따는 사람도 없네.
杏花一株立巖頭,	살구나무 한 그루가 농암 가에 서 있는데
枝幹枯瘦經冰雪.	가지는 마르고 줄기는 여위었나니 얼음과 눈 꺾었다네.
退溪學士邀賞春,	퇴계에 계시는 학사 맞아 봄 경치 감상하러 했거늘
遷延不見已數月.	망설이며 미루어 못 본 지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네.
把杯從容雖可喜,	술잔 잡고 조용히 앉아 즐길 수도 있겠지만
花事多欠笑談空.	꽃 구경하는 일 거의 없어 웃고 얘기하는 일도 없네.
東君暖律豈長秘,	동군이 따스한 봄 기운을 어찌 오래 숨기리?
要趁重來滿樹紅.	다시 올 때에 맞추어 온 나무에 붉은 꽃 만발하리.

당시 이황은汾川에 있던 이현보를 만나러 가서 이현보의 살구나무 아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를 주고받았다. 이현보의 시체에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이때 노래 부르는 아이가 부른 소식의 “爭挽長條落香雪”이라는 시구를 듣고는, 자신이 먼저 소식의 이 시에 차운한 후 이황에게 화답을 청한 것이다. 진작부터 이황과 함께 봄 경치를 감상하고 싶었으나 몇 달 만에야 어렵사리 그 기회가 생겼는데, 이해 봄이 유독 인색하여 따뜻해지지 않은 탓에 살구꽃이 아직 피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다음을 기약하기도 했다. 얼마 남지 않은 봄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소식의 시를 골라 여기에 차운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酬唱할 대

44) 李賢輔, 《龔巖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상은 이황이었기 때문에 원시의 내용 혹은 원시의 작자인 소식에 대한 서술보다는 이황과 함께하는 당시의 상황과 이황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이 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황 역시 동일한 운자를 써서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拜巖巖先生, 先生令侍兒歌東坡月夜飲杏花下詩, 次其韻示之, 滉亦奉和呈上(농암 선생을 찾아뵈었더니, 선생께서 노래 부르는 아이에게 동파가 달밤에 살구꽃 밑에서 읊은 시를 노래하게 하시고는 그 시의 운자에 차운하여 보여주시기에, 나도 화답하여 드리다)〉<sup>45)</sup>

病臥山中九十春,	구십 일의 봄날 산속에서 병들어 누워 있다가
起拜巖仙春喚人.	일어나 농암의 신선을 뵈었네 봄이 사람을 불러서.
巖中老仙惜光景,	바위 속의 늙은 신선은 봄 풍경을 아껴서
獨立汀洲詠白蘋.	홀로 모래섬에 서서 흰 마름꽃을 읊조리시네.
倚巖紅杏尚未發,	바위에 붙어선 살구꽃은 아직 피지 않았는데
催令雪兒唱香雪.	설아에게 향기로운 눈을 읊은 시를 부르게 하시네.
待得花開要賞春,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가 봄빛을 감상하려니
只恐花時已無月.	꽃 필 때면 달이 이미 없어질까 두려울 뿐이네.
咳唾珠璣俄頃中,	삼시간에 구슬 같은 멋진 시구를 내뱉으시고
吟罷不覺杯心空.	읊조림이 끝나자 어느 사이 술잔이 다 비었네.
江邊歸興浩無涯,	강변으로 돌아가는 흥취 끝이 없는데
回首亂山花欲紅.	돌아보면 어지러운 산에 꽃이 붉게 피려 하리.

비록 소식 시의 운자를 활용하였지만 직접적인 화답의 대상은 함께 있는 이현보였으므로, 당시 모임에 대한 묘사 및 감회 위주로 시가 전개되었으며, 이현보를 ‘巖仙’이라며 신선시하기도 하고, “삼시간에 구슬 같은 멋진 시구를 내뱉으신다(咳唾珠璣俄頃中)”라며 그의 시재를 칭송하기도 하는 등 상대를 치켜세운 것이다.

이현보와 이황의 화소시 모두 소식의 원시와 창작배경이 유사하다. 소

45) 李滉, 《退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식은 당시 여러 벗들과 함께 살구나무 아래에서 꽃구경을 하다가 가는 봄을 아쉬워하며 이 시를 지었는데, 아마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이현보가 자연스럽게 소식의 이 시를 떠올린 것 같다. 물론 소식은 향긋한 눈이 내리듯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을 보면서 지었고, 이현보와 이황은 늦추위로 인해 살구꽃이 아직 피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었다는 차이는 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소식의 꽃구경이 내심 부러운 나머지 소식의 시를 통해서나마 상상 속 꽃구경을 해 보고는 이곳도 얼른 따뜻해져서 살구꽃이 만발하기를 바라는 염원까지 이 시 안에 담았을 수도 있겠다.

이처럼 이현보와 이황은 소식의 시운을 교유의 수단으로 삼은 셈인데, 소식 원시의 내용이 당시 자신들과 유사한 상황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이 시가 떠올랐을 터, 이는 소식의 시가 그들에게 그만큼 익숙했다는 뜻이다.

위의 시는 이황이 직접 소식의 시를 골라 차운한 것이 아니라 동석에 있던 이현보가 먼저 지은 화소시에 다시 화답한 것이지만, 이후에 이황 스스로 소식의 이 시에 세 차례 더 차운하기도 했다.

다음 시는 위의 시를 지은 지 1년이 지난 1551년 봄날 밤에 다시 한번 이현보를 모시고 살구꽃을 감상하며 지은 것이다.

〈11일 밤에 농암 선생을 모시고 달빛 아래 살구나무 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과의 운을 사용하다(十一夜, 陪龔巖先生, 月下飲酒杏花下, 用東坡韻)〉<sup>46)</sup>

暮春欲暮前年春,	늦봄이 저물려 하던 작년 봄에는
花開月缺愁殺人。	꽃은 피었으나 달이 이지러져 시름겨웠지.
暮春未半今年春,	늦봄이 반도 안 지난 올해 봄에는
月滿花樹風生蘋。	달빛이 꽃나무에 가득하고 바람은 마름에서 생기네.
臨流對酒高興發,	물가에 나가 술잔 드니 고아한 흥취가 일어나고
萬斛開愁如沃雪。	만 섬이나 되는 괜한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네.
蘇仙一去幾今古,	소씨 신선 한 번 떠난 후 몇 해나 됐나?

46) 李滉, 《退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本 卷2.

依舊杯中一片月.	술잔 속의 한 조각 달만 예와 다름이 없네.
唱徹瓊詞幔亭中,	장막 친 정자에서 고운 노래 다 부르고 나니
仙風浩氣如憑空.	신선 같은 풍모와 호탕한 기세가 허공에 기대 있는 듯.
醉宿江樓香滿懷,	취하여 강가 누대에서 자니 향기가 품 안에 가득한데,
夢魂不到東華紅.	꿈속에서도 궁성의 붉은 꽃에 가지 않네.

시기가 맞지 않아 꽃과 달이 어우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던 지난 봄과는 달리, 이해 봄에는 꽃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시의 전반 네 구절에서는 과거를 회상하고 이어서 올봄을 그때와 비교했는데, 지난해에 지은 화소시와 마치 連作詩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시에서는 “소씨 신선 한 번 떠난 후 몇 해나 됐나? 술잔 속의 한 조각 달만 예와 다름이 없네(蘇仙一去幾今古, 依舊杯中一片月)”라며 소식을 신선에 빗대고 있는데, 예전에 자신들처럼 꽃구경을 하며 풍류를 즐겼던 소식은 이미 온데간데없고 술잔 속의 달만 의구하다며 인생무상의 감정을 드러냈다. “依舊杯中一片月”은 소식 원시의 “勸君且吸杯中月”을 떠올리게 하는바, 이황이 여기에서 ‘杯中月’이라는 표현을 차용하고 다른 내용과 연결시켜 새롭게 변형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로부터 또 1년이 지난 후인 1552년에 동일한 시운으로 쓴 화소시이다.

〈길에서 宋麒壽(즉 송태수)와 마주쳤더니 저녁에 돌아오면서 들러 보겠다고 기약했는데, 그가 왔기에 꽃 아래에서 조촐하게 술을 마시다(遇宋台叟於途, 期夕回見過. 既至, 小酌花下)〉<sup>47)</sup>

偶然期賞芳園春,	우연히 기약했네 향긋한 동산의 봄빛을 감상하기로
市橋南頭逢玉人.	저자 다리 남쪽에서 고운 입을 만나서.
歸來最憶龔巖仙,	돌아오니 가장 생각나네 농암의 신선이

47) 시체에 “동과가 달 아래 살구꽃 아래에서 술을 마신 것을 읊은 시의 운자를 사용하다(用東坡月下飲杏花下韻)”라는 주석이 있다. 李滉, 《退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本 卷2.

花月清宵詠採蘋	꽃이 핀 맑은 달밤에 마름 따는 걸 노래하던 일이. <sup>48)</sup>
如今更覺清興發	지금 다시 맑은 흥취가 일어나는 느낌인데
桃花初動杏纒雪	복숭아꽃 막 피려 하고 살구꽃 눈처럼 흩날리네.
一尊迎暮地勢高	지세 높은 곳에서 한 잔 술로 저녁 맛이하니
霞色纒沈薄籠月	노을빛이 막 가라앉자 달빛이 얇게 감싸네.
人間萬事酒杯中	인간세상 만사가 다 술잔 속에 있나니
得喪毀譽俱成空	얻음과 잃음 비방과 칭찬 모두 헛것이 되고 마네.
他年巖海儻咨詢	언젠가 사신 되어 영남 땅에 오시면
物外肯訪源花紅	속세 밖으로 도화원의 붉은 꽃 기꺼이 찾아 주오.

제1-2구에서는 송기수와 우연히 만나 꽃구경을 기약한 내용을 서술했고, 제3-4구에서는 첫 번째 화소시를 지은 해에 이현보와 함께했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어서 송기수와 꽃구경을 하며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담아낸 후,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송기수와 의 다음을 기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 역시 간접적으로는 소식의 시에 화답한 셈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송기수와 의 교류를 위해 지은 시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된 것이며, 소식의 시는 이들의 교류에 있어 일종의 매개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이황의 화소시 가운데, 소식의 〈中秋月寄子由, 三首(중추절의 달을 읊어 자유에게 부치다)〉<sup>49)</sup> 其一에 차운한 〈중추절의 달을 읊어 林亨秀(즉 임사수)에게 부치다(中秋月, 寄士遂)〉<sup>50)</sup>가 있는데, 이 역시 교류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소식은 이 시에서 중추절을 맞아 병약한 몸을 이끌고 연회에 참석했다가 일찌감치 돌아가서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48) 1550년 이황이 분천에 있던 이현보를 찾아갔다 살구나무 아래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화소시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이현보가 지은 화소시에 “연못 물가에 봄풀 난다는 사령운의 말도 헛된 것이고, 남쪽 시내에는 노래하며 마름 따는 사람도 없네(池塘春草是虛句, 南澗無人歌採蘋)”라는 구절이 있었기에, 이황이 이것을 전고로 삼으며 과거를 회상한 것이다.

49) 蘇軾 著, 《蘇軾詩集》, 王文誥 輯註, 北京: 中華書局, 1987, 卷17.

50) 시제에 “동파의 운자를 사용했다(用東坡韻)”라는 주석이 있다.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 韓國文集叢刊本 卷1.

에 빠진 일을 노래했고, 이황도 중추절을 맞은 감회를 읊었는데, “찬란한 그대들이여! 노 두드리며 와서 함께 지내세(粲然二三子, 叩樵來相從)”라며 달을 감상하면서 벗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려져 있다. 소식 원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 “차가운 물속의 고기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마주 보고 입을 벌름거리린다(寒魚亦不睡, 竟夕相唵喙)”라 했고, 이황 화소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 “시를 읊조리는 것이 아직도 습관으로 남아, 밤새도록 물고기처럼 입을 벌름거리네(吟諷尚餘習, 竟夕如魚喙)”라고 했다. 소식은 밤새 입을 벌름거리며 함께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중추절인데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기네 형제들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노래했고, 이황은 비록 시 짓는 능력은 다했지만 시 짓는 습관이 남아 자꾸 무언가를 읊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밤새 입을 벌름거리리는 물고기에 비유했다. 이황은 소식 원시의 “물고기가 밤새도록 마주 보고 입을 벌름거리린다”는 표현을 차용하되 다른 의미로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의경을 창출해 냈다. 이 화소시는 이황이 임형수라는 동시대 문인에게 부친 것으로, 소식의 시운은 역시 그들의 교류에 있어 매개의 기능을 한 것이다.

## V. 결론

조선 중기에는 성리학의 성행으로 인해 소식이 학문·사상뿐 아니라 문학 방면에서도 배척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海東朱子」라 불릴 정도로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이황은 소식의 시를 즐겨 읽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그의 시에 추화한 화소시를 짓기도 하였다.

현전하는 이황의 화소시는 12題 14首로, 중국 문인들에 대한 이황의 추화시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화소시는 소식 애호의 중요한 방식이자 소식 시 학습의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는바, 본고는 소식이 이황에 미친 영향의 일단을 알아보고자 그의 화소시 창작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황은 소식과의 정서적 교감을 위해 화소시를 지었다. 그는 소식의 시에 공감한 나머지 평소에 늘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회를 토로하곤 했다.

둘째, 이황은 소식과의 시재 비견을 위해 화소시를 짓기도 했다. 특히 소식이 험운을 사용해서 지은 시에 여러 차례 차운했을 뿐 아니라 직접 이 시에 대한 추화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는 은연중에 자신의 시재를 소식과 한번 겨루어 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황은 동시대 문인들과의 교유에 화소시를 활용했다. 현전하는 그의 시 가운데 화시의 비율이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시로써 교유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동시대 문인들과 교유할 때 종종 소식의 詩韻을 활용한 바, 소식의 시가 이들의 교유에 있어 훌륭한 매개의 기능을 한 셈이다.

소식을 배척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당시 문단의 분위기 속에서 그것도 「海東朱子」라고 불릴 정도로 성리학의 대가였던 이황이 이처럼 적지 않은 화소시를 지었다는 사실은, 그가 소식과의 사상적인 대립과는 별개로 소식의 문학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황이 매우 대인다운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과, 소식의 영향력이 사상적으로 양속 관계인 성리학자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컸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權應仁, 《松溪漫錄·下》(韓國文集叢刊本)  
 柳成龍, 《退溪先生年譜》(韓國文集叢刊本)  
 柳素眞, 〈韓國古代文人的「和蘇詩」〉, 《中國語文學》 제63집, 2013.  
 柳素眞,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 北京: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柳素眞, 〈李滉 詩歌의 蘇軾 관련 用典 양상〉, 《中國語文學誌》 제70집, 2020.

- 柳種陸, 《팔방미인 소동파》 서울: 신서원, 2005.
- 蘇軾 著(柳種陸 譯註), 《정본완역 蘇東坡詩集(1-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2019.
- 리우닝, 〈李退溪와 朱熹 詩風の 差異 및 그 原因〉, 《退溪學報》 제126집, 2009.
- 신두환, 〈退溪의 漢詩에 나타난 「拙樸」의 美〉, 《漢字漢文教育》 제20집, 2008.
- 신두환, 〈주자와 퇴계의 매화시 비교 연구〉, 《淵民學志》 제32집, 2019.
- 申錫愚, 《海藏集》(韓國文集叢刊本)
- 이정화, 〈退溪의 和答詩 研究〉, 《韓國漢詩研究》 제10호, 2002.
- 이중호, 〈퇴계 수창시의 양상과 의의〉,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7호, 2010.
- 李賢輔, 《聶巖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本)
- 李滉, 《退溪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本)
- 李滉, 《退溪先生別集》(韓國文集叢刊本)
- 李滉, 《退溪先生續集》(韓國文集叢刊本)
- 李滉, 《退溪先生續內集》(韓國文集叢刊本)
- 李滉, 《退溪先生外集》(韓國文集叢刊本)
- 李滉 著(이장우·장세후 옮김), 《퇴계시풀이(1-9)》,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2019.
- 정석태, 〈退溪의 梅花詩에 對하여〉, 《退溪學研究》 제5집, 1991.
- 陸游, 《渭南文集》(文淵閣四庫全書本)
- 蘇軾, 《東坡志林》(文淵閣四庫全書本)
- 蘇軾 著(王文誥 輯註),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 蘇轍 著(會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王定保, 《唐摭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lt; Abstract &gt;

During the middle Chosun dynasty while Yi Huang(李滉) was working, admiration for Su Shi(蘇軾) fell into decline with the appearance of Korean neo-Confucianists. During this period, not only Su Shi's thought and scholarship was harshly criticized, but his literature was also criticized. But I found Yi Huang nevertheless liked and learned Su Shi's works a lot and he even wrote some responding poems to Su Shi's(和蘇詩).

The aspects of Yi Huang's responding poems to Su Shi's are as below. First, he wrote some responding poems to Su Shi's for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Su Shi. Secondly, he wrote some responding poems to Su Shi's to compare his poetic talent with Su Shi's. Thirdly, he used Su Shi's poems to keep company with his friends.

Yi Huang, even praised as 'Zhuzi of Chosun(海東朱子)', nevertheless wrote some responding poems to Su Shi's in such an atmosphere. It shows that Yi Huang accepted Su Shi's literature without prejudice, apart from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with Su Shi. And it means that Yi Huang was a man of tolerance and Su Shi's influence was so great that it reached Korean neo-Confucianists who were in a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with Su Shi in the academic field.

Key Words : 蘇軾(Su Shi), 李滉(Yi Huang), 和蘇詩(responding poems to Su Shi's), 海東朱子(Zhuzi of Chosun), 朝鮮(Chosun)

